

분당대첩 승전 손학규 지지율 15%로 급상승

야권연대·개혁공천 땀 정권 재창출 연출 가능

4·27 재보선에서 '분당 대첩'을 이끌어 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차기 대선에 대한 야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차기 총선에서 야권연대와 개혁 공천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정권 창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갈등과 균열이 심화된다면 대선 구도는 크게 요동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월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손 대표는 지난 3월 15일(7.7%) 조사에 비해 약 2배나 오른 14.9%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34.4%)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호남권에서 손 대표의 지지

율은 지난달 23%에서 35.3%로 급등한 반면 것으로 박 전 대표의 지지도는 20.8%에서 16.6%로 떨어졌다.

또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지지율은 3.6% 포인트 떨어진 7.1%를 기록, 오세훈 서울시장(8.1%)에게 밀린 4위로 떨어졌다.

같은 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손 대표는 지난주 대비 5.0% 포인트 상승한 13.5%로 유 대표(11.0%)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특히, 이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3.8% 포인트 떨어진 28.4%를 기록해 20% 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그동안 막막하기만 했던 대선 구도에 활로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차기 총선에서 야권연대와 과감한 개혁 공천으로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야

권의 대선주자 경선 드라마를 연출한다면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가속화되면서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야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 여름밤의 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직후 지지율이 15%선까지 올랐으나 별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한 자릿수로 급락한 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 이어 줄곧 3위권에 머물러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은 수권 세력으로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함께 진보와 중도를 함께 포용하는 등 외연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기도회

광주·전남 기독교교단협의회 주최로 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기도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영진·박주선 국회의원, 교단협의회 임원과 성도들이 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학벨트 기초연구 분원 2~3개가 바람직”

노도영 GIST 교수 제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형태와 관련, 분원과 별도로 5~8개의 연구단을 묶은 분원(클러스터)을 2~3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에서 열린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 포럼’에서 “각 지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사이트랩(Site-lab) 그룹을 형성하거나 광역경제권 특성에 따라 사이트랩을 할 수 있도록 20~25개의 연구단과 분산 설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이트랩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50개 예정) 가운데 분원에 속하지 않은 외부 연구단으로, 경쟁력

을 갖춘 국내외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지정될 수 있다.

노 교수는 우선 분원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초과학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개의 연구단과 1000~1250명의 충분한 연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아울러 지역별로 몇 개 사이트랩을 클러스터로 묶어 분원 형태로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 테

마가 유사한 5~8개 정도의 연구단을 1개 클러스터로 조직하고, 사이트랩 클러스터 연구공간은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 형태로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승환 포스텍(포항공대) 교수도 한곳에 사이트랩이 모여 있는 ‘집중형 연구소’의 경우 다른 지역 대학과의 협력이 어렵고 인력 이동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계적 연구소들이 권역 대학 및 연구기관끼리 클러스터를 이뤄 분원과 융합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 지지 깎아 먹는 사람 물러나야”

광주온 한나라 정 두 언 최고위원

“나는 지시할테니 너는 따르라” MB 리더십 문제

당·정·청 인적 쇄신… 지역안배 호남인사 중용을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일 4·27 재보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당내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지(도)를 깎아 먹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이제 이분들은 뒷전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당·정·청 인적쇄신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은 것은 당과 정부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람이 많고, 이들이 모두 공천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모두 뒤로 물러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소장파들이 당 대표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힘이 약해, 저뿐만 아니라 원희룡, 남경필 등 소장파 의원들은 단일화를 통한 도전을 해야 한다”라며 차기 당 대표 도전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중 충성심보다는 소신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나는 지시할 테니 너는 따르라”며 “나는 지시할 테니 너는 따르라”고 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사실상 정부 부처 인사권이 있어 장관들이 조직 장악을 못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비서관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능력 위주 인사를 강조하면서 지역안배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지역안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호남인사의 중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박 전 대표가 무슨 자리를 맡는다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표 자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주장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지금 민심과 맞는 이야기냐”라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94%가 국민경선공천제도에 찬성했다”라며 “공천권을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손에서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넘겨준다면 정치문화가 확 바뀌고 자동으로 계파는 해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라며 “여당이 이것을 확정하면 야당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국회여수박람회 특위

시설 사후활용 소위 구성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 사후활용 대책 소위원회’ 구성했다.

소위는 향후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보고서를 작성해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성곤·주승용 의원, 한나라당 차명진·김재경·유일호 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등 6명이 선임됐고 김성곤 의원이 소위원장직으로 뽑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전엑스포의 사례를 거울삼아 박람회 사후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고 여수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1 고객사상 브랜드 大賞 | Johnson & Johnson MEDICAL COMPANIES

올해는 카네이션과 함께 **원터치 울트라이지**를 준비하세요

저혈당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컴퓨터로 관리하는 **원터치 울트라이지** -

당뇨를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스마트한 혈당관리**로 매일매일 챙겨드리세요

※의료기기는 의료기점에서 구매하세요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 카네이션 이벤트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도 챙기고, 할리언스 상품권도 챙기세요!
기간: 2011년 4월 18일 ~ 2011년 5월 20일(33일간)

1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를 구매하고 고객카드를 작성하시면 5분을 주점하여 2인동반 할리언스 당뇨산책 참석권을 드립니다

2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 세트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께 뉴트로지나 설탕볶음을 드립니다

음모처 및 관련 문의 원터치 고객 서비스센터 080-555-4499 / www.onetouch.co.kr / 한국온센앤드론센데비(주)

ONE TOUCH 감정한 생활의 시작

신약번호 2011-GN-08-0028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